

정신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영수*, 류의정**

*국립나주병원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e-mail : yeswecan9075@naver.com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among Psychiatric Nurses

Young Soo Kim*, Eui Jeong Ryu**

*Naju National Hospital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G광역시와 J도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및 지역사회 기관 간호사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t-test,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는 소진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두 변수 모두 소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소진 예방을 위해 직무환경 개선과 조직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1. 서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영역에서 근무하는 정신간호사는 환자의 공격적 행동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러한 근무 환경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2]. 특히 정신간호사가 경험하는 환자의 반복적인 폭력행동은 심리적 긴장과 정서적 부담을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신적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직무스트레스 또한 소진과 관련된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1,2].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 소진 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아, 이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진의 주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와 J도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간호사 136명이다.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114명이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36명으로 결정하였다.

2.3 연구도구

측정도구는 폭력경험 측정도구, 직무스트레스(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 소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95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대상자의 폭력경험은 평균 2.16±1.02점, 직무스트레스는 2.39±0.38점, 소진은 2.63±0.65점으로 나타났으며, 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탈진이 가장 높았다.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는 소진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두 변수

모두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9%로 확인되었다.

[표 1]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36)					
예측변수	B	SE	β	t	p
상수	3.27	0.56	-	5.83	<.001*
성별(남)	-0.02	0.11	-0.02	-0.20	0.844
연령(30대)	0.14	0.10	0.12	1.32	0.189
종교(있음)	0.08	0.10	0.08	0.85	0.395
직위(일반간호사)	-0.02	0.11	-0.02	-0.20	0.842
폭력경험	-0.41	0.14	-0.27	-2.96	0.004*
직무스트레스	0.45	0.13	0.30	3.42	0.001*
F(p)			5.564(<.001)		
R ² (Adj R ²)			.23(.19)		

*p < .05

*더미변수 : 성별(여성=0, 남성=1), 연령(30대 미만=0, 30대=1), 종교(종교없음=0, 종교있음=1), 직책(책임간호사 이상=0, 일반간호사=1)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별과 연령 등의 일반적 특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간호사의 소진이 개인적 특성보다 직무환경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3].

정신간호사는 언어적 폭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4]. 직무스트레스는 높은 직무요구와 위기 상황 대응과 같은 업무 특성과 관련되어 나타났으며, 소진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정신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근무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1,2].

특히 소진은 정서적 탈진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간호사의 높은 정서적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간호사의 소진이 반복적인 직무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5].

종합하면, 정신간호사의 소진은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직무환경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예방 체계 구축과 직무 부담 조정 등 조직 차원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 결과, 정신간호사의 소진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직무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익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복적인 폭력 노출과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간호사의 정서적 탈진과 소진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간호사의 소진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대응에 국한하기보다, 폭력 예방 체계 강화와 직무 부담 조정, 조직적 지원 확대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 본 논문은 김영수의 석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연구임

참고문헌

- [1] 이난희, “정신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호학회지, 제41권, pp.120-130, 2011.
- [2] 서정원, 강미란, 제남주. "정신과병동 간호사의 소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폭력경험, 폭력대처, 사회적지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7 pp.393-405, 2019.
- [3] 하명희, “정신간호사의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 대한간호학회지, 제50권, pp.150-160, 2020.
- [4] 이지희, 안효자. "정신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5.3 pp. 500-507, 2024.
- [5] Shah, M. K., et al. (2021). Nurse burnout in the United States. JAMA Network Open, 4(2), e2036469.